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November 20, 2026 Vol. 1033

이민교회의 영성과 헌신, 코리안 아메리칸의 신앙 유산으로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으로 신앙 정체성 계승, 가정에서 시작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인도·파키스탄·니카라과 등 현지인 중심 선교 전개


서재에서 김정오 목사. ⓒ 기독일보

동부장로교회 김정오 목사는 이민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정체성 회복 문제를 꼽으며,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교육을 통해 부모 세대의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새벽기도 후 기독일보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민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교육, 해외 선교 사역,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영적 유산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목사는 먼저 동부장로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교회 안에서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중언어를 통해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영어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지만,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언어와 문화의 간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에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도 오전 9시와 11시에 드린다. 오전 9시 예배는 내가 직접 영어로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어가 편한 성도와 영어가 편한 성도가 언어는 달라도 동부장로교회라는 하나의 몸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 계승 모델을 언급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배경에는 언어와 신앙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왔지만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왔다. 그들에게 언어는 정체성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자녀가 영어만 사용한다면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달라지고, 결국 신앙의 간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교육을 통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특히 이민교회가 과거 다음 세대 교육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 이민교회들이 영어권 사역자를 세우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영어권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는 프로그램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역자들이 이중문화권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를 갖춰야 하고, 당회도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을 받는 것과 가정에서 매일 신앙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사설]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웃과 나누는 절기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904년 장로교 공의회가 정한 감사일에서 시작돼 교파가 연합해 11월 셋째 주간으로 정했다가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며 수확의 결산을 이웃과 나누는 데 힘쓰고 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성경의 절기에 있다. 이스라엘이 곡식과 포도를 다 거둔 뒤 초막절(수장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고, 그 자리에는 자녀와 종과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초대되었다(신16:13-15).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단지 풍년을 자축하는 잔치가 아니라 신명기 8장 10절 말씀처럼, 내 손의 수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정착됐다. 1621년 미국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거둔 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후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으며, 이 전통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교회에도 전해졌다.

지금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 지키지만 10월로 앞당기거나 11월의 다른 주일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 특정한 날짜에 고정하는 의미보다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할 의미와 책무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샬롬나비는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있다"고 했다. 또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결실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역사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감사의 실천을 구체적인 나눔과 돌봄으로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절기로 삼아 왔다. 교회 인근의 지역민과 소외된 이웃을 초청해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감사의 이유가 소출의 크고 적음에 있지 않고 주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 감사하는 게 첫째고, 감사로 드린 헌금을 교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목적지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정부보조 상담 환영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NEWSTA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설치비의 현금으로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 정체성 분명하지 않으면, 세대 간 신앙의 간극 발생

➔ 1면 기사 〈이민교회의 영성과 헌신〉에 이어서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말하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다. 신앙교육은 특별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추구하는 보수적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성도 나눴다. 신학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신앙적 간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토요학교 학생들 사진. ⓒ 동부장로교회

토요학교 통해 신앙 · 인성 · 지성 함께 교육

동부장로교회는 이러한 목회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한국학교 교육에 예배와 인성교육, 학습 지원 등을 더해 다음 세대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토요학교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육을 약 3시간 진행하고, 여기에 예배와 인성교육을 더하고 있다. 아이들이 신앙적인 인성을 갖추도록 예배와 인성교육을 각각 30분씩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에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필요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과 컴퓨터 교육도 진행한다. 다음 학기에는 AI 관련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LA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려면 학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어 "약 3년 전 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학 교수 출신을 교장으로 세우고 상당한 투자를 계획했지만, 교회의 인지도와 신뢰, 학교 운영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들이 자녀를 선뜻 맡길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토요학교를 통해 부모들에게 교회의 교육 방향을 알리고 확신을 얻은 뒤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 · 파키스탄 · 니카라과 등 현지인 중심 선교

동부장로교회는 해외 선교 사역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니카라과 등에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 개척과 교육, 의료 및 복지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약 130명의 현지 목회자가 함께하고 있으며, 300~400개 정도의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프런티어 지역에 집중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인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교 현장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재정이나 건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현지인 사역자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준비되면 그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소외된 힌두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을 돕기 위해 병원과 학교, 기숙사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 학교에는 약 16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졸업생들도 현지에서 봉사하며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없는 마을을 위해 마을학교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를 세우기도 한다. 건물이 없어 나무 밑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한 달에 약 200달러가 필요한데, 100달러는 교육 장소와 시설 운영에, 나머지 100달러는 교사들의 교통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현재 약 6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와 병원 사역이 시작된 이후 그 지역에 교회도 세워지고 있다."

니카라과 선교도 약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니카라과에 교회와 신학교, 어린이 사역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다.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운동하고 책을 읽으며 교류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알래스카 유픽 원주민 선교

김 목사는 최근 알래스카 원주민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알래스카에는 유픽(Yup'ik)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과거 복음이 전해졌지만 한국교회와 달리 현지인 중심의 신학교육과 지도자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오지 마을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면서도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역자가 필요하다. 추운 기후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도 선교가 필요하지만,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 역시 복음과 교육이 절실한 곳이다. 미국 안에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선교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의 좋은 영성과 헌신의 DNA 지켜야"

인터뷰 말미에 김 목사는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과거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용하던 교회와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던 교회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언어가 사라지고 영어만 남았다. 그 결과 그들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도 점차 희미해졌다. 이민교회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거나,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함께하는 이중언어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다민족 교회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음 세대와 그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신앙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교회가 가진 새벽기도와 헌신적인 신앙생활, 공동체 정신 등을 중요한 유산으로 꼽았다.

또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비교할 때 헌신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미국교회가 가진 장점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한국교회가 가진 영성과 헌신의 정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부장로교회: 4270 W. 6th St, LA CA 90020, (213) 383-3261

남가주 사랑의교회 연말 특별 새벽부흥회

남가주 사랑의교회가 오는 11월 30일(월)부터 12월 12일(토)까지 연말특별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박신일 목사(B2B Ministry 대표), 호성기 목사(세계전문인선교회 대표), Julius Kim 목사(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부총장), Gary Shiohama 목사(South Bay Community Church 설립목사), Steve Chang 목사(Sola Network 대표), Erik Thoennes 목사(Talbot Seminary 교수) 등 7명의 목회자와 신학자가 강사로 나선다.

월-금 오전 4시 30분, 토 오전 5시 30분

남가주 장로성가단 한국 순회 성료

남가주 장로성가단(단장 한철수) 단원과 중보팀 등 42명이 11월 2일 LA를 출발해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9일까지 한국에서 순회 공연을 펼쳤다.

이번 순회에는 단원 28명과 중보팀 12명이 참여했으며, 지휘자 김정대 목사와 반주자 윤경미 교수가 동행했다.

성가단은 서울 충현교회와 사랑의교회, 성남 순복음성령사랑교회, 부산 금정교회와 영도교회, 포도원교회 등 6개 교회를 방문해 찬양을 선보였다.

특히 부산 포도원교회에서는 주일예배에서 부산 장로성가단과 연합 찬양을 진행해 두 성가단 소속 100여 명의 단원이 연합 무대를 꾸몄다.

순회 일정 중에는 자라섬과 설악산 권금성 등을 방문했으며, 11월 6일에는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 포도원교회 연합 찬양. ⓒ 남가주장로성가단

성가단 측은 이번 순회 공연에 대해 "매 공연에서 남성합창의 중후한 음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트럼펫 협주와 '담대하라' 등의 찬양을 통해 단원과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eung Presbyto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뉴크리에이션교회 · 사우스베이에벤에셀교회 합병예배

김관중 목사 원로목사 추대 최경철 목사 담임목사 위임



뉴크리에이션교회와 사우스베이에벤에셀교회가 합병 감사예배 . ⓒ 기독일보

뉴크리에이션교회와 사우스베이에벤에셀교회가 15일 오후 4시에 뉴크리에이션교회에서 합병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관중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최경철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이영길 장로, 전경호 장로의 장로 은퇴식도 진행됐다.

담임목사로 위임한 최경철 목사는 감사 인사를 통해 두 교회의 합병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안병권 목사(서부 시찰장)는 연합의 의미와 목회의 본질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전했다.

김종규 목사(부노회장)는 축사를 통해 두 교회의 하나 됨을 축하하고, 새로운 목회 여정에 나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본문으로, 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병권 목사는 김관중 원로목사와 45년간 이어온 인연을 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목회 현장에서는 늘 김 목사님을 좇아왔다. 개척도 먼저 하셨고, 필라델피아로 가신 뒤에도 계속 그 뒤를 따라갔다"며 "목회자로서, 선배로서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경철 목사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세 가지 권면을 전했다. 안 목사는 한 드라마에서 빵을 만드는 경연을 하며 배부른 빵, 재미있는 빵, 행복한 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를 목회에 적용했다.

그는 "첫째는 배부른 목회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배부르게 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재미있는 목회다. 예수님은 유머러스한 분이셨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셋째는 행복한 목회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목회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규 목사(부노회장)는 두 교회의 합병을 축하하며 연합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예배 중 불린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 겪는 한계의 순간을 예로 들었다. 다리가 돌처럼 굳고 몸이 한계에 이르는 구간을 만나면, 이때 코치는 선수에게 단순히 힘을 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앞을 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앞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야 자세가 펴지고 호흡이 돌아오며 다시 뛸 준비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과 목회 여정에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김관중 원로목사에게는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셨지만, 주만 바라보며 다시 호흡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최경철 목사에게는 개척 12주년을 맞아 새로운 목회 여정을 시작하는 만큼 위임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목회 여정에서 다리가 굳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은퇴하는 장로들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20~30년간 교회를 섬겨온 헌신의 시간과 흔적을 높이 평가하며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은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뒤에는 수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있다. 끝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는 합병 이후에도 변함없는 헌신을 당부했다.

감사예배에서는 박준식 목사(남가주노회 서기)의 인도 하에 최복식 목사의 대표기도, 최태규 목사(노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모든 순서는 최태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한빛장로교회 창립 51주년…감사와 헌신으로 새로운 도약

추수감사예배 및 임직예배 이광영 장로 장립



한빛장로교회 창립 51주년, 추수감사 및 임직예배. ⓒ 기독일보

한빛장로교회(담임 구경모 목사)가 11월 15일 창립 51주년 추수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구경모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한빛 찬양팀의 찬양과 신선묵 목사의 대표기도, 한빛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구 목사는 역대상 29장 10~19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기쁨, 헌신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진정한 감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헌신의 기쁨은 자신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 물질과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헌신이라고 전했다.

구 목사는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헌신을 단순한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응답으로 생각한다"며, 성도들의 감사가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 되고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 되기를 권면했다.

봉헌 시간에는 한빛중창이 봉헌송을 드렸으며, 김계용 장로가 봉헌기도를 맡았다.

이어진 임직예식에서는 임직자 소개와 장로 서약, 안수위원 및 당회원들의 안수기도, 가운식과 악수례가 진행됐다. 구 목사는 이광영 장로의 장립과 한빛장로교회 장로 취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앞으로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축원했다.

권면을 맡은 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중심으로, 장로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구하거나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삶에서 본이 되며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사명에 충성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를 전한 기독일보 이인규 대표는 선배 장로들이 이광영 장로의 교육 과정에 함께한 일화를 소개하며 공동체의 따뜻한 동행을 격려했다. 이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로 돌아온 베드로처럼,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삶이 빈 그물처럼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다며 이들을 향한 돌봄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듯 이 장로가 지친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직패와 꽃다발 전달 후 이광영 장로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장로는 담임목사를 힘껏 도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은 자신에게, 공로는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섬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예배는 한빛 찬양대의 축하송과 김상현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조셉 리 기자



GMU 30주년, 아름다운 동행으로 선교 사역 새 비전 나눠

이병구 부총장 GMU 비전 제시
선교 중심 신학교육, 성령 충만 지도자 양성, 실천적 교육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기독일보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총장 최규남)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하나님께서 GMU를 통해 이루신 사역을 돌아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주님의 제자와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함께해 온 후원자와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의 선교적 사명과 학교의 비전을 나누고 새로운 동역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이병구 부총장은 GMU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 선교 중심의 신학교육, ◈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 양성, ◈ 실천적인 교육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부총장은 GMU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신학교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선교적 신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령의 능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GMU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은혜한인교회와 GMI의 영성을 이어받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GMU가 지난 30년 동안 달려온 목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비전으로는 실천적인 신학교육을 제시했다. 이 부총장은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실천적인 학교가 되어야 한다"며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성도들의 헌신과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홍 이사장(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중심으로 설교하며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어 "GMU를 통해 여러분이 후원하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

한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GMU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규남 총장과 교수진, 교직원들의 헌신에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기도에서 한 이사장은 후원의 날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과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후원자들을 축복했다.

이날 최규남 총장의 환영인사와 박기호 교수의 축사, GMU 교직원과 OCKMC 합창단의 특송 및 후원 영상 시청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 33회 학생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 제 33회 학생음악회. ⓒ GMC 한미연회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 제33회 학생 연주회가 오는 11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한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 "One Stage, Many Worlds"는 바로 이러한 음악의 다양성과 조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작품부터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지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통해 관객들을 다채로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으로 시작하여 영웅적 투쟁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이어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낭만주의 특유의 열정과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는 경건함과 평화, 신성한 음악적 기쁨을 전한다.

특히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합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음악을 통한 인간의 화합과 형제애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A Night on Bald Mountain) 은 강렬하고 역동적인 음악적 상상력으로 극적인 긴장감을 선사하며,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3악장은 아름답고 유려한 선율을 통해 깊은 서정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음악회 전체를 이끄는 윤임상 교수는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며 음악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석 초대로 연주되는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시대를 여행하고 다양한 감정을 나누며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음악적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11월 20일(금) 저녁 7:30
장소: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문의: 213-388-1000



미주흥사단, 새로운 100년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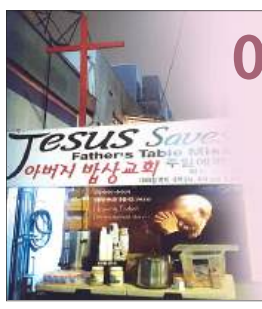
미주흥사단(대표 이기욱)이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8주년을 맞아 카탈리나 제2흥사단소(미주흥사단 본부)의 현판식을 거행하고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와 도산 정신을 미래 세대에 이어갈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선언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철학을 오늘의 시대에 구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실천으로 확장할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일 오전 10시 30분 제2흥사단소(3417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10) 현판식 행사에는 이기욱 미주흥사단 대표를 비롯해 LA 총영사관 동포담당 박철 영사, 국가원로회의 미주 서부지부 정영조 공동의장,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곽도원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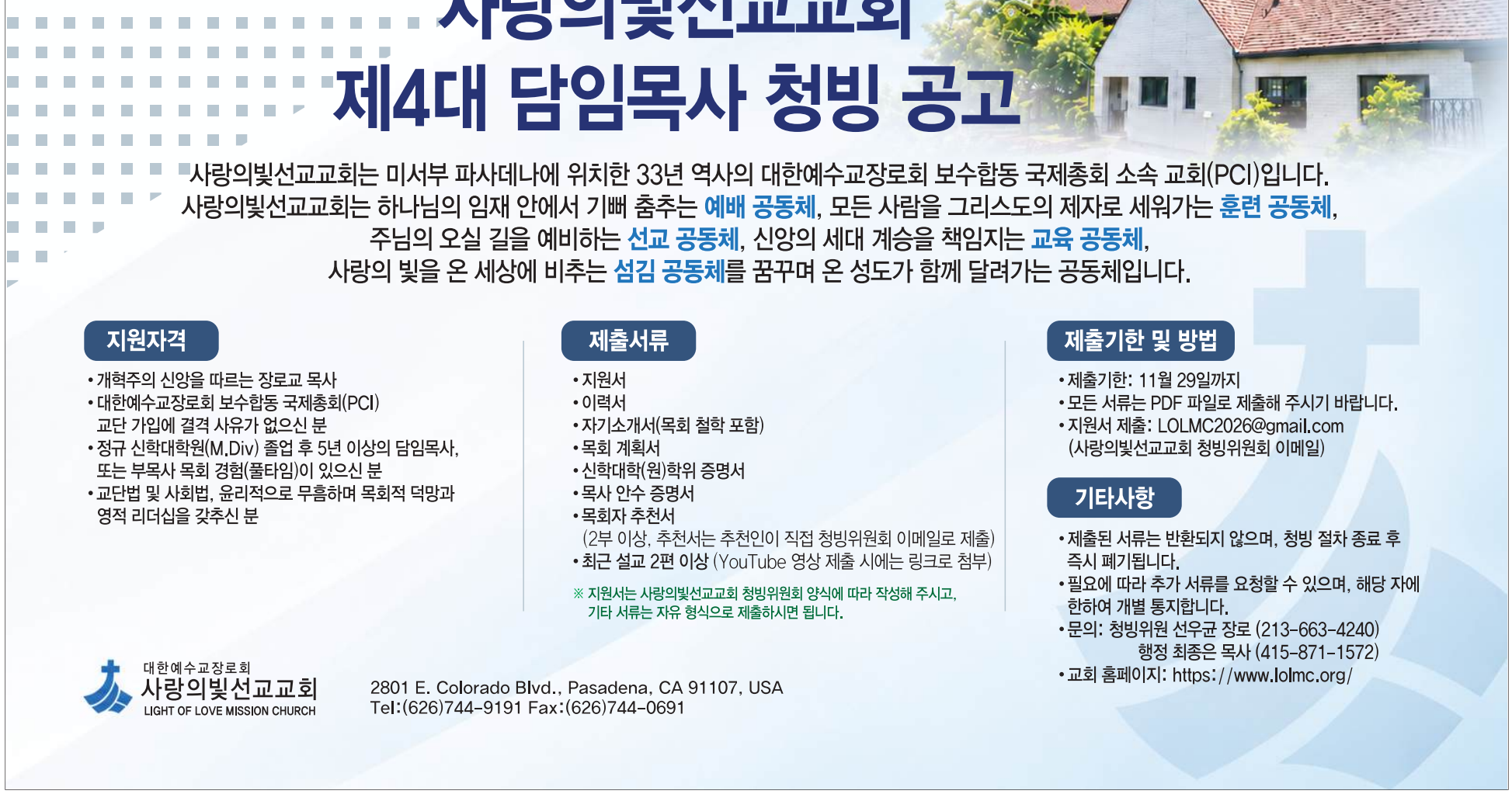
미주흥사단은 제2단소를 한인사회 각계 단체와 차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LA와 리버사이드에 건립된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을 연결하는 이른바 '도산 벨트'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트루스캔 이미징센터 오픈기념 이벤트

초음파 검사 특별 프로모션

EVENT UNTIL 12/31/26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확인하세요!

~~$199~~ **$99**

상복부, 하복부, 연부조직

복부, 골반, 연부조직 중 1가지 부위를 선택하세요!

~~$199~~ 각 **$149**

초음파 3종 패키지

갑상선, 복부, 골반, 연부조직 중
총 3가지 부위를 선택하세요!

~~$599~~ **$349**

혈관 초음파 패키지

경동맥 + 양측 하지 정맥 & 동맥 포함
미리 체크해서 예방하세요!

~~$899~~ **$499**

흉부 X-RAY

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99~~ **$50**

초음파 주요 검사 항목

· 복부 · 골반 · 갑상선 · 혈관 · 연부조직 · 유방 (별도의 히스토리 필요)

그 외 검사 부위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빠르고 편리한 검사 예약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진

최신 장비로 정확한 진단

안전하고 편안한 검사 환경

당일 및 빠른 예약 가능

(714) 602-9760

월-금 | 8:30 AM - 5:00 PM

TRUESCAN IMAGING CENTER

6800 Lincoln Ave, Suite 100, Buena Park, CA 90620

“북송된 탈북민, 고문 등에 노출… 中, 강제송환 중단해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16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인권통일연대,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참여한 범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범국민연합은 성명에서 “지난 달 21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과 강제실종·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은 2023년 중국의 대규모 강제북송 재개 이후 송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보고가 이어졌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서 독립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송환자 다수의 생사와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강제실종과 고문, 처형, 강제노동,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음을 지적했다”며 “또한 이들은 중국에서 여전히 강제송환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의 보호 문제도 강조하면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더라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극심한 인권 유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피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며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며 탈북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범국민연합은 “북한 정권은 탈출을 국가반역으로 간주하며, 탈북자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다. 송환된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나 교화소에 수감되며 고문, 강제 노동, 성폭력 등에 노출된다”며 “유엔은 이 송환을 ‘고문과 잔인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중단을 수없이 촉구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1961년 체결된 중조국경 협정과 1986년 탈북자 송환 협정에 기반하여 탈북민이 정치적 박해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북한과의 양자 협정에 따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을 정당화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은 중국 구치소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 과밀 수감, 영양 부족, 구타가 일상적이며, 일부는 자살을 시도한다. 강제 송환은 비밀리에 이뤄져 가족이나 국제 단체의 개입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스스로 약속한 의무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2024년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국인 중국에 대해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을 직접 권고했다”며 “전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이며 인권이사국이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그 직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전세계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유엔난민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심사 기회 보장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의 피해자 보호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천환 대표회장, 네팔 홍수 피해 현장 방문해 구호물품 전달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방문해 현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천 목사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한교연은 홍수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교회와 기독교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천 대표회장은 이번 구호활동의 동기에 대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심정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확인한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천 대표회장이 방문한 비두르 일대에서는 트리슐리 강 양쪽으로 10m 이상 물이 들어왔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상당수 주택은 떠내려갔으며, 남아 있는 건물들도 침수 피해로 형체만 유지한 채 폐허가 된 경우가 많았다.

피해 주민들은 안전한 상류 지역으로 이동해 천막에서 생활하거나 월세로 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다. 아직 정부 차원의 장기 정착촌이 마련되지 않아 주거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홍수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남아 있었다.

천 대표회장은 열악한 도로와 험준한 산지를 약 3시간 이동해 비두르 맞은편 트리슐리 지역을 방문했다. 현지 하나님의성회(AG) 교단 벧엘교회와 협력해 피해 가정에 식탁 200개를 전달했으며,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월세 주택과 천막을 찾아가 생활 형편과 어려움을 들었다. 주민들과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홍수 피해 지역에서는 여러 NGO 단체와 교회들이 모금과 후원을 통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이 흩어지고, 기존 지역에 다시 교회를 세우거나 정착하기 어려워 교회 차원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천 대표회장은 “현지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 주민과 교회를 돕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 장기적인 고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심각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 및 의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운데)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위해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한교연.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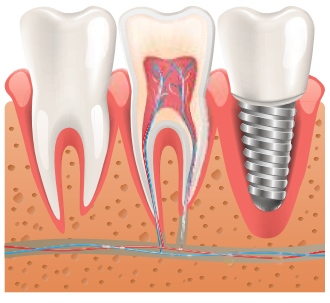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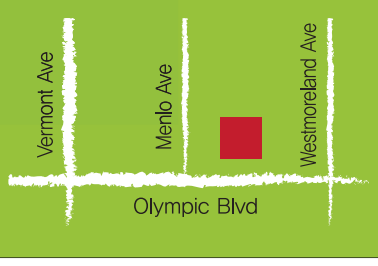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피페린, 빌베리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주께서 쉼표 찍으신 곳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선 안 된다”

새생명비전교회 17주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너진 제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목회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지난 17년의 여정을 돌아봤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으로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짐했다.

강준민 목사는 지난 11월 15일 창립 기념 주일예배에서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 사건을 통해 실패와 수치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 ‘돕는’이 에제르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서다.’(시편 121:1-2)의 도움이 에제르이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에벤에셀에 돌비를 세웠다.”

그는 “기억은 성숙한 신앙생활의 기초”라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17년 전,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지난 삶에 베푸신 은혜였다.

그는 로고스교회를 개척했던 때의 은혜를 나누며,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회고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989년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다. 신자는 아무도 없었다. 1989년 1월 14일 날 로고스교회 첫 신자를 얻게 되었고 예배 처소를 알아보았던 중 이글락 침례교회 성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이어서, 새생명비전교회가 개척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장례에도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헌신 속에 17년의 발걸음을 이어왔다."

강 목사는 “우리가 17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17년, 또 2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감사의 ‘기억’에 머무는 대신, 공동체가 함께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NLVC

“기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라면, 기념은 마음에 간직한 것을 눈에 보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념을 통해 기억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현하고 가족과 공동체, 후손들에게 전수하게 된다.”

이어 이 교회의 주 관심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며, “저는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초심을 생각한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간을 시끄럽게 한 사람역시 ‘초심’을 잃었던 것에서 그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심을 지키는 일은 교회와 가정 모두에서 절제와 의지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결혼 생활을 50년, 60년 지켜내는 부부들의 비결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용서’를 꼽았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도 성숙한 인물로 성장한다”며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며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설교 후반부에서 강 목사는 수치와 패배의 땅이었던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은 세 가지 영적 비결을 제시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이며, 둘째는 ‘중보기도’다. 강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역사를 역전시켰음을 상기시켰다. 셋째는 ‘성심껏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 팬데믹 이후 예배가 너무 쉬워진 시대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장의 시련과 상황만 보고, 각자의 삶을 실패와 성공으로 단정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람들은 당장의 시련과 한 장면만 보고 쉽게 단정 짓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조셉 리 기자

직업 소명의식 있는 기독교인 67%… 일터 신앙 실천은 36%

기독교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일터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신앙적 인식과 일터에서의 삶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가 17일 발표한 주간리포트 ‘넘버즈 358호’에 실린 ‘일터 신앙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직장인의 67%는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직장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1%(가끔+자주)로, 10명 중 4명꼴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7%로 가장 높았고, 30대 49%, 40~50대는 30%대를 기록했다. 목데연은 사회초년생의 낮은 연차와 직장 내 눈치, 세속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따르는 부담과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일터에서 겪는 신앙적 갈등 요인으로는 ‘조직 내 인간관계’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음주 문화’(24%), ‘불공정한 조직 문화’(21%), ‘부당한 지시와 갑질’(21%) 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당수 기독교인 직장인은 신앙적 기준을 지키려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윤리적 관행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동료 험담에 참여하지 않았다’(72%), ‘부당한 지시를 거절했다’(66%)는 응답도 3명 중 2명 이상이었다.

비기독교인 직장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인 직장인들의 예상보다 우호적이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직장인은 66%였지만, 실제 비기독교인 직장인 가운데 기독교에 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다만 일터에 친밀한 기독교인 동료가 있는 비기독교인의 우호도는 45%로, 친밀한 기독교인 동료가 없는 경우(27%)보다 높았다.

비기독교인 직장인 중 일터에서 기독교인 동료에게 도움을 받거나 좋은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였다.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받음’(42%), ‘업무에서 도움을 받음’(36%), ‘기도와 관심’(32%) 등이 꼽혔다.

반면 기독교인 동료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들이 꼽은 부정적 경험은 ‘전도나 교회 출석 권유를 받음’(48%),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낌’(45%), ‘일반인보다 더 이기적·자기중심적임’(44%) 순이었다.

일터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로는 ‘감사와 긍정의 태도’(40%)와 ‘정직·성실·책임감 있는 모습’(39%)이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 이어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23%), ‘타인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17%) 순이었다. 비기독교인 직장인 역시 기독교인 동료가 신뢰받기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5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45%),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30%)이 뒤를 이었다.

교회의 일터 신앙 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실제 교육 경험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기독교인 직장인의 91%가 일터 신앙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최근 1년간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직장인과 목회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인 직장인은 ‘일터 생활과 신앙 갈등 상담’(37%)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지만, 담임목회자는 ‘일터 신앙과 직업 소명에 관한 설교’(5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진영 기자



파키스탄 소수종교 여성 납치 강제 개종 84건, 미성년자 최소 43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파키스탄에서 소수종교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납치·강제 개종 사례가 최소 84건 보고됐다. 피해자는 기독교인 49명과 힌두교인 35명으로, 이 가운데 최소 43명이 18세 미만이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의 소수종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사회정의센터(CSJ)가 지난 11월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펀자브주에서 47건, 신드주에서 36건, 발루치스탄주에서 1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펀자브주에서 확인된 피해자 47명 가운데 46명은 기독교인, 1명은 힌두교인이었다. 반면 신드주에서는 힌두교인이 33명, 기독교인이 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펀자브주 라호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드주 상가르 7건, 펀자브주 파이살라바드 6건, 신드주 탄도알라야르 5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14~17세는 37명, 14세 미만은 6명이었다. 성인은 31명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은 나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CSJ는 기독교인과 힌두교인 여성·소녀가 납치되거나 개종을 강요받은 뒤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CSJ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파키스탄 전역에서 소수종교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납치·강제 개종 사례 515건을 확인했다. 이 기간 신드주가 363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펀자브주가 146건으로 약 28%를 기록했다. 발루치스탄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는 각각 4건과 2건이 확인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124건, 2023년 136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83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5년간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신드주 미르푸르카스(55건)였으며, 신드주 우메르코트와 펀자브주 라호르가 각각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펀자브주 라호르 외에도 카수르와 물탄, 라힘야르칸, 시알코트 등에서 각각 2건이 확인됐다.

CSJ는 인권단체와 소수종교 인권 활동가들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이 더뎠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는 신고된 사례 가운데 확인을 마친 건을 집계한 것으로, 추가 확인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라호르 출신의 13세 기독교인 소녀 마리아 샤바즈 사건을 주요 사례로 다뤘다. 샤바즈는 납치된 뒤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하고 자신을 납치한 것으로 지목된 남성과 결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샤바즈가 미성년자임에도 혼인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 결정으로 소수종교 미성년자를 사법 절차에서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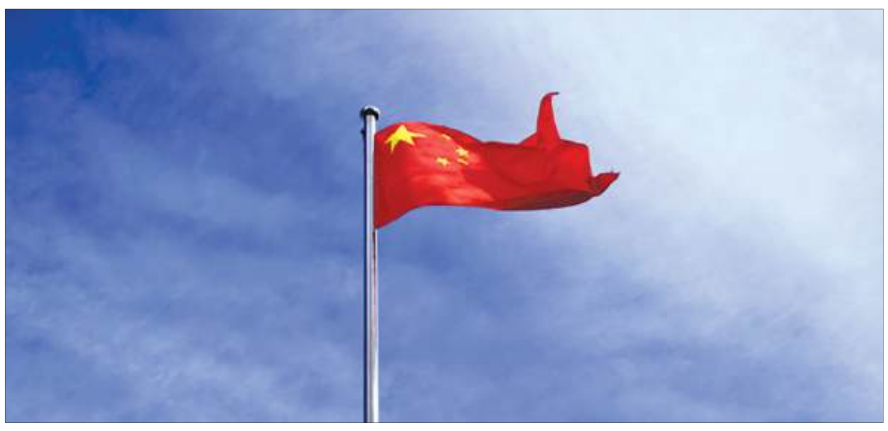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후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한 청원을 받아들였고, 재판부 규모를 확대해 심리에 들어갔다.

신드주 상가르의 21세 힌두교인 여성 리타는 펀자브주 구지란왈라 출신 남성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설득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월 담당 판사는 리타를 보호시설로 옮겨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기각하고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CSJ는 이 남성이 이전에도 기독교인 여성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뒤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수종교 여성을 상대로 한 착취가 반복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발루치스탄주 시비 출신의 빈디야 쿠마리와 신드주 우메르코트 출신의 칼파나 메그와르가 신드주의 한 이슬람 성지에서 개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마리는 14세이며, 메그와르는 학교 기록상 13세다. CSJ는 두 사건에서 납치와 강제 개종, 미성년자 혼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두 사람의 소재와 가족 접촉 여부, 법적 절차 진행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드고등법원은 경찰에 오는 23일 쿠마리를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 최 기자

中, 베이징 시온교회 신자 4명 보석 제한 해제



ⓒpixabay

중국 당국이 베이징 시온교회(北京锡安 会) 신자 4명에 대한 보석 조건과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해당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 8명은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양리쥔(Yang Lijun), 쑨쉐(Sun Xue), 황춘쯔(Huang Chunzi), 투야(Tuya)는 최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한 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마쳤다.

영국에 본부를 둔 종교 자유 단체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9일 당국의 소환을 받고 다음 날 베이하이시 하이청 사건처리센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됐던 보석 조건에는 당국의 허가 없이 거주 도시를 벗어나거나 여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관할 파출소에 출두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다시 구금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4명은 더 이상 형사상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

또 다른 교회 신자인 추이(Cui)도 올해 초 보석 조건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신자 4명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전히 보석 상태에 놓여 있다. 한편 교회 공동 지도자인 왕린(Wang Lin) 목사를 비롯해 목회자 가오잉자(Gao Yingjia), 인후이빈(Yin Huibin), 류전빈(Liu Zhenbin), 린수청(Lin Shucheng), 왕충(Wang Cong), 장로 왕중(Wang Zhong), 우추위(Wu Qiuyu) 등 8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 이들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온 8인(Zion 8)'으로 불린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처치 인 체인스(Church in Chains)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사기' 또는 '불법 경영'으로 변경했다. 왕린 목사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수사 당국은 교회 헌금과 신학교 교육 과정에서 받은 수업료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미등록 교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법원에 넘겨졌다. 당초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리가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이어 10월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아직 새로운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베이징 시온교회는 진밍르(Jin Mingri·에즈라 진) 목사가 2007년 설립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리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리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주일 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요르단 정교회 장례식장 총격 사건 용의자 3명 사형 선고

요르단에서 최근 그리스정교회 장례식 도중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숨지게 한 남성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요르단군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피고인 3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테러, 테러 행위 공모, 무기 소지, 테러 조직 사상 선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피고인 중 2명은 요르단 국적의 형제이며,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매형이다. 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요르단 남부 카라크주 흐무드 마을에 위치한 성 조지 교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례식이 진행되던 교회에서 총격이 벌어져 9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

BBC가 보도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무장한 남성 3명이 교회로 접근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현장에 쓰러진 사망자와 부상자들, 아수라장이 된 주변 상황이 포착됐다.

CNN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현지 방송 알맘라카(Al-Mamlaka)에 당시 교회 건물 안팎에 150명 이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요르단 공공안전국 관계자는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격이 장례식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 장소로 해당 교회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 종교 자유 운동가는 다른 활동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영상 자료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기독교인들 역시 총격범들이 젊은 무슬림 남성들이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용의자 3명은 사흘 뒤 사건이 발생한 카라크주 내 버려진 주택에서 보안군에 의해 발견됐다. 요르단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이들은 투항을 거부하고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대응한 보안군의 사격으로 모두 부상을 입었다. 보안군 측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사건 직후 엑스(X)를 통해 이번 공격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격으로 요르단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국민적 단결 앞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ixabay

국왕은 또 요르단을 위협하는 세력에 "철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후 용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한 보안군을 치하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요르단은 보복 차원에서 시리아 내 테러 조직 관련 목표물을 공습했다. 시리아 남부 다라주 마을을 겨냥한 공습으로 노인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보건당국이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반면 요르단은 자국 전투기가 테러리스트 여러 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시켰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국은 공습 사전 조율 여부를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요르단은 시리아 정부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측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카라크주는 요르단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큰 지역 중 하나다.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요르단에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한다. 특히 총격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오랫동안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요르단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은 드문 편이다. 알모니터(Al-Monitor)에 따르면 2008년 암만에서는 레바논 기독교 합창단이 공격을 받았으며, 같은 해 당국은 기독교 묘지와 교회 건물을 겨냥한 테러 계획을 사전에 적발했다.

이미경 기자

이호선 교수, 굿네이버스에 모친상 조의금 1억 90만원 기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모친상 조의금 1억 90만원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달 모친 故 김정화 목사를 떠나보낸 후, 장례 기간 동안 모인 조의금 전액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이 교수는 생전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자 추모기부를 결심했다.

이번에 굿네이버스에 전달한 추모기부금은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이후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주거·경제·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굿네이버스는 자립준비청년 15,37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자격증 취득 교육, 생활 지원 등 경제적·정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도왔다.

이 교수는 2025년부터 굿네이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받은 퀴즈 상금도 기부했다. 6월에는 굿네이버스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굿네이버스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은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하며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나눔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호선 교수는 "어머니는 늘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으셨다"며 "'사랑밖에는 답이 없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호선 교수 ⓒ굿네이버스

이번 추모기부를 계기로 이 교수의 모친 故 김정화 목사는 굿네이버스 유산기부자 모임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에 76번째로 등재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은 유산기부와 추모기부 등을 통해 소중한 사람의 삶과 뜻을 기억하며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는 특별회원 모임이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나눔 정신을 이어주신 이호선 교수님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인을 향한 가족의 사랑과 추모의 마음이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찬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선 교수는 tvN STORY '이호선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상담 코너를 맡는 등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X의 알고리즘과 극단주의의 덫



브랜든 쇼월터 기자. ⓒChristian Post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자이자 평론가인 브랜든 쇼월터 기자의 기고글인 "엑스(X)의 독한 문화, 더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목회자들이여, 이제는 직시하라"(The rot on X isn't fringe anymore. Pastors, wake up.)을 11월 16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보지 못하는 문제에는 맞설 수 없다. 문제를 알아차리고도 '극단적인 소수의 이야기'라며 흘려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발언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사실과 그 발언의 영향력이 작다는 판단은 서로 다르다. 필자가 엑스(X)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살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과거 트위터를 자주 쓰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온라인의 소란쯤으로 여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말과 이미지가 젊은이들이 세상을 해석하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층의 이념적 갈등, 특히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간극을 엑스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나타났고 여러 요인이 겹쳐 깊어졌다. 다만 필자는 팬데믹을 거치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엑스의 추천 방식이 갈등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 확대, 엑스에는 무엇이 퍼졌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린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청년들의 소외감 파고드는 온라인 혐오 선동
목회자들, 청년들의 온라인 세계를 직시해야

표현의 문이 열리자 무엇이 퍼졌는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필자는 그와 세계관이 많이 달랐음에도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었다. 이전 경영진 아래에서 제한됐던 주제도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리라고 봤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는 《뉴욕포스트》의 헌터 바이든 노트북 관련 기사 공유를 제한했다. 기독교 매체인〈크리스천 포스트, (CP)〉는 트랜스젠더 공직자의 성별을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표기한 게시물로 약 9개월간 계정이 제한됐다. 풍자 매체 《바빌론 비》(The Babylon Bee)도 비슷한 주제의 게시물로 제재를 받았다. 독립 언론인 메건 머피(Meghan Murphy) 역시 성별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 뒤 계정이 정지됐다. 필자가 보기에 당시 규정은 정당하게 토론할 수 있는 이견까지 억누르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노골적인 혐오나 폭력 선동에 같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는 의문이었다. 머스크가 인수한 뒤 제재받았던 계정들이 복구됐고, 이전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주제를 더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불쾌한 의견도 공론장에 나올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표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원칙과, 민간 플랫폼이 어떤 게시물을 추천하고 수익을 배분할지 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말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 말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보상하는 것은 별개의 선택이다.

엑스에 조회수가 표시되면서 자극적인 게시물이 얼마나 널리 퍼지는지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필자가 본 엑스에서는 차분하게 근거를 제시한 글보다 분노와 적대감을 자극하는 글이 훨씬 큰 반응을 얻는 일이 잦았다. 그 가운데에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내세우는 계정도 있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혐오를 퍼뜨릴 때

몇 달 전, '그리스도는 왕이시다'(#ChristIsKing)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유대인을 공격하는 게시물을 본 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미워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썼다. 곧바로 욕설이 쏟아졌다. 일부는 자동화된 계정에서 나온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댓글도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적대감은 2023년 10월 7일 공격과 이후 이스라엘·가자 전쟁을 거치며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고백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고백을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구호로 사용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일과 유대인 전체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일 역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과거 트위터에서 '인종차별주의자'나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말이 토론을 막는 낙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 실제 인종차별이나 백인 우월주의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는 없다. 일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블루스카이(Bluesky) 등으로 옮겨가는 사이, 엑스에서는 성별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일반 이용자들 사이로 극우 계정의 게시물도 흘러들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무엇이 토론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일부 선동가는 젊은이들, 특히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좌절을 파고든다. 그 감정에는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를 유대인이나 인종적 소수자, 여성에게 돌리도록 부추기는 일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풀어갈 길을 제시하는 대신, 미워할 대상을 내어주는 것이다.

목회자가 먼저 물어야 할 것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목회자에게 이 문제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청년들이 매일 보는 영상과 게시물은 이미 그들의 대화와 관계에 들어와 있다. 어떤 계정의 말을 신뢰하는지, 그 말이 왜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유머처럼 공유되는 게시물이 실제로는 누구를 겨냥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답을 듣기도 전에 꾸짖으면 청년들은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꺼내지 않게 될 수 있다.

과거 주류 언론이 일부 극단적인 교회를 내세워 평범한 그리스도인까지 희화화했을 때, 필자는 그 교회들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 지금도 혐오를 일삼는 계정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목회자를 자처하는 일부 인물과 온라인 선동가들은 수많은 팔로워를 모으고, 인종차별과 배타주의, 복수심을 복음인 양 전하며 수익을 얻는다. 추천 알고리즘이 소수의 목소리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콘텐츠를 반복해서 접하는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청년들의 질문과 불만을 진지하게 듣는 동시에, 인종적 우월감과 집단을 향한 증오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필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청년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알아차릴 지혜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퍼지는 혐오에 침묵하지 않을 용기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마지막주) 오후 11:00 /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오전 6:00 (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e.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r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10 / 3부예배 오전 12:00 / 금요예배 오후7:3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 AM / 주일 2부 9:30 AM (각 교육부 예배) / 주일 3부 11:20 AM (각 교육부 예배) /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 PM / 새벽예배 (월-금) 5:30 AM (토) 6:00 AM / 한어청년부 1:30 PM / 영어대학부 2:00 PM / EM(dscp) 1부 9:30 PM / 2부 11:00 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 유년부 (K-2) 오전 10:30 / 초등부(3-5) 오전 10:30 /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 중보기도 (Interces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 초,중,고등부 오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 주일 2부 오후12:00 / 젊은이 예배 오후 2:00 / 주일학교 오후 12:30 /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 주일2부예배 오전11:00 / 유아유치부 오전11:00 / 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전 10:30 /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 주일 2부 9:30AM / 주일 3부 11:15AM /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 중고등부 9:30AM/11:15AM / 수요기도회 7:30PM /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 주일 EM예배 오후 12: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11:00 /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 수요예배 저녁 7:3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오전11:00 /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주일 2부 예배 1:30 PM / 수요예배 7:00 PM /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 주일학교 오전 11시 /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 금요예배 저녁 7시 /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rkpc.net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30 / 청년부 주일 오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홍경헌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I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Worldwide FAMILY INC.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2026 겨울 청소년 연합수련회

한인 이민 가정의 다음 세대가 '한 몸, 한 성령'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LA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하는 겨울 청소년 연합수련회 'ONE SPIRIT 2027'이 12월 27일(주일)부터 29일(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LA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지역 교회 중고등학생 최대 100명이 참가하는 이번 수련회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에베소서 4장 4절)를 주제 말씀으로 삼았다.

다시 열린 연합의 자리

수련회 준비는 LA나성순복음교회 교육국이 맡았다. 교육국은 그동안 지역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이어 왔지만, 지난여름에는 교회 전체 수련회 일정과 겹치면서 연합수련회를 열지 못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꾸리기 어려운 지역 교회와 북미총회 소속 교회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겨울 수련회로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

사흘간 에베소서 155절 완독

이번 수련회의 중심에는 에베소서 통독이 있다. 참가자 전원은 사흘 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155절을 빠짐없이 읽는다. 통독은 매번 예배에 앞서 조별로 진행된다. 오전 조별 모임과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부터 30분간 함께 본문을 읽고, 곧이어 드리는 예배에서 그 본문을 토대로 한 설교를 듣는 방식이다. 한영 가이드북이 제공돼 한국어가 익숙한 학생도, 영어가 편한 학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강사로는 David Kim 목사(호프웰 순복음교회)가 나서 세 차례 예배를 인도한다.

사흘의 일정은 에베소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첫날인 27일(주일) 오후 4시 등록과 방 배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7시 1-2장을 읽고, 7시 30분 저녁 예배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와 '허물어진 담'(2:14)을 주제로 말씀을 들은 뒤 조별 나눔을 갖는다. 둘째 날인 28일(월)에는 오전 9시 조별 통독과 QT로 3장을, 저녁에는 4장을 읽고 '한 몸, 한 성령: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4:3-4)는 메시지를 나눈다.

함께 걷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

28일 오전 10시에는 조별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찾아 사진 미션을 수행하는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며, 일행은 오후 5시 교회로 돌아온다.

참가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2박 3일을 함께 지낸다. 조마다 풀타임 교사가 끝까지 동행하고 파트타임 교사들이 힘을 보태며 나눔과 돌봄을 이어간다. 찬양팀과 식당봉사팀, 중보기도팀, 미디어팀, 회계·관리·사진 기록을 맡은 진행팀도 한마음으로 섬긴다. 숙박과 식사는 모두 교회 안에서 해결하며, 부모는 동행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등록할 때 휴대전화를 맡기고 모든 활동을 조별로 함께하며 말씀과 공동체에 오롯이 집중하게 된다.

진유철 담임목사는 "다니는 교회도, 편한 언어도,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번 수련회에서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령으로 살고 세상으로 보내심

마지막 날인 29일(화)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에베소서 5-6장을 읽으며 한 권 통독을 마무리한다. 이어 오전 11시 폐회 예배에서 '성령 충만한 삶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으로 보내심'을 주제로 한 말씀을 들으며 사흘간의 여정을 갈무리하고, 낮 12시 30분 점심 식사 후 귀가한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말씀 한 권에 온전히 머무는 이번 수련회는 교회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인 청소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서로를 한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 등록은 12월 6일(주일)에 마감된다.

문의: LA나성순복음교회 교육국 양주열 목사 (213) 500-1110 (문자 선호) / edu@lafgc.com

센터메디컬그룹, 알파카 조끼 400벌 나눔

센터메디컬그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시니어들에게 따뜻한 겨울 선물을 전했다. 지난 11월 12일 애나하임에서 진행된 알파카 조끼 나눔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당초 센터메디컬그룹은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조끼를 나눠드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사 시작 전부터 이미 300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을 찾아 줄을 서는 등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이에 행사 담당자들은 더 많은 분께 혜택을 전할 수 있도록 추가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해 현장으로 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100벌 많은 총 400벌의 알파카 조끼를 전달했다.



센터메디컬그룹 관계자는 "2년 전 조끼 나눔행사 이후 다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보내주셔서 올해 다시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함께하는 메디컬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메디컬그룹 대표 번호 : (888) 847-3098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짙은 구름 아래서 기다리는 영성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눈물만 보입니다. 아픈 말 한마디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닫힌 문 하나가 인생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장면 앞뒤로 이어지는 길이 보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던 만남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눈물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눈을 열어 줍니다. 오늘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이 써 가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장면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갈 때 그의 인생은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그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근 가운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렸습니다(창 50:20). 형들이 행한 악은 분명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도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룻 1:21). 그러나 그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사랑과 보아스의 돌봄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에는 아기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가 나옵니다(룻 4:14-17). 그 아이에게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펼쳐집니다.

다니엘은 젊은 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 낯선 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서도 그를 붙드셨습니다.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다니엘의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에는 그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자기 몫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단 12:13).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놓였고, 돌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 너머에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신 부활의 주님

멀리 바라보는 믿음
비극 너머의 은혜
하나님의 큰 그림

이 영광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눈물과 상처를 지나 생명과 기쁨에 이르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의 한 장면을 인생 전체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픈 날에는 아프다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흐르면 애통하며 우십시오. 그러면서도 아직 쓰이지 않은 다음 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이 약속은 고통 자체를 선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선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롬 8:29).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며, 시련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빚어 가십니다.

인생은 여러 색실로 짠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뒷면에서는 실들이 뒤엉켜 보입니다. 매듭이 불거져 있고, 색실들이 어지럽게 교차합니다. 그러나 앞면에서는 그 실들이 하나의 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작품을 뒷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실이 왜 필요한지, 매듭이 왜 그곳에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앞면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의 실 한 가닥을 맡기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도 장인의 손에서는 모자이크가 됩니다. 홀로 놓여 있을 때는 날카로운 파편이지만, 다른 조각들과 어우러지면 빛을 받아 아름다운 그림을 이룹니다. 우리 손에 남은 조각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잃어버린 기회도, 풀리지 않는 질문도, 차마 말하지 못한 눈물도 맡겨 드리십시오.

인생은 신비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모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강태광 칼럼

착한 종이 되게 하소서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부산 어머님 댁에 가면 어머님 추천으로 찾아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살리는 교회'다.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께 감동한 어머님의 추천이다. 내 아들과 동갑인 30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 작은 교회다. 목사님의 충실한 기도 생활과 말씀 준비가 느껴진다. 젊은 목사님의 신실한 모습에 감동되어 응원하고 싶은 교회다.

살리는 교회는 담임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성도들도 훌륭하다. 교회를 개척하던 전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자, 젊은 전도사님을 후임 목회자로 결정하고 긴 세월을 기다렸다. 담임목사 가정과 중직자(핵심 멤버)들의 헌신도 아름답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아름답다.

지난 10월에 살리는 교회 최경배 목사님의 말씀 중에 "착한 종"이 되자는 말씀이 있었다. 많은 말씀 중의 한마디였다. 목사님은 큰 의도 없이 전한 말씀이었던 듯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을 찔렀다. 이 말씀이 몇 주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삶을 돌아보니 수많은 기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말씀을 읽고 들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처음이었다.

이 말씀에 큰 울림을 받는 것은 아마도 이번 여행 주제 중 하나가 '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 때때로 충성된 종의 흉내는 낸 듯한데, 착한 종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자신을 발견했다. 착한 종이 되려는 노력조차 없이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을 화들짝 차린다. 공의라는 이름으로 정의감이 악하게 표출되기도 했고, 못되게 행동하기도 했다. 교만과 악함으로 범한 죄가 크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후회막심하다.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일까? 성경에 나타난 착한 종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윗이 보인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다. 잠자는 사울을 보고 단칼에 끝낼 기회였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부추겼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보았다. 심판하고 복수하는 권한은 오직 주인(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억울함보다 주인의 주권을 우선시했기에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착한 종이 될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착한 종이다.

신약과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도 착한 종들이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악행도 당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 갚지 않았다. 신약의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도 분노하지 않았고, 되갚아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두 요셉은 착한 종들이다.

문득 쓰임 받는 착한 목사님들이 보인다.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며 착하게 주를 섬기던 종들이 발탁되기도 하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는 모습을 보며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한국 방문 기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간 교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종들이 보여 감사가 넘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늘 상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 땅의 상급과 칭찬이 없어도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착한 종'이 되고 싶다. 요즘 모든 기도 시간에 '착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오늘 아침에도 '착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남은 날들을 '착한 종'으로 살기를 사모한다!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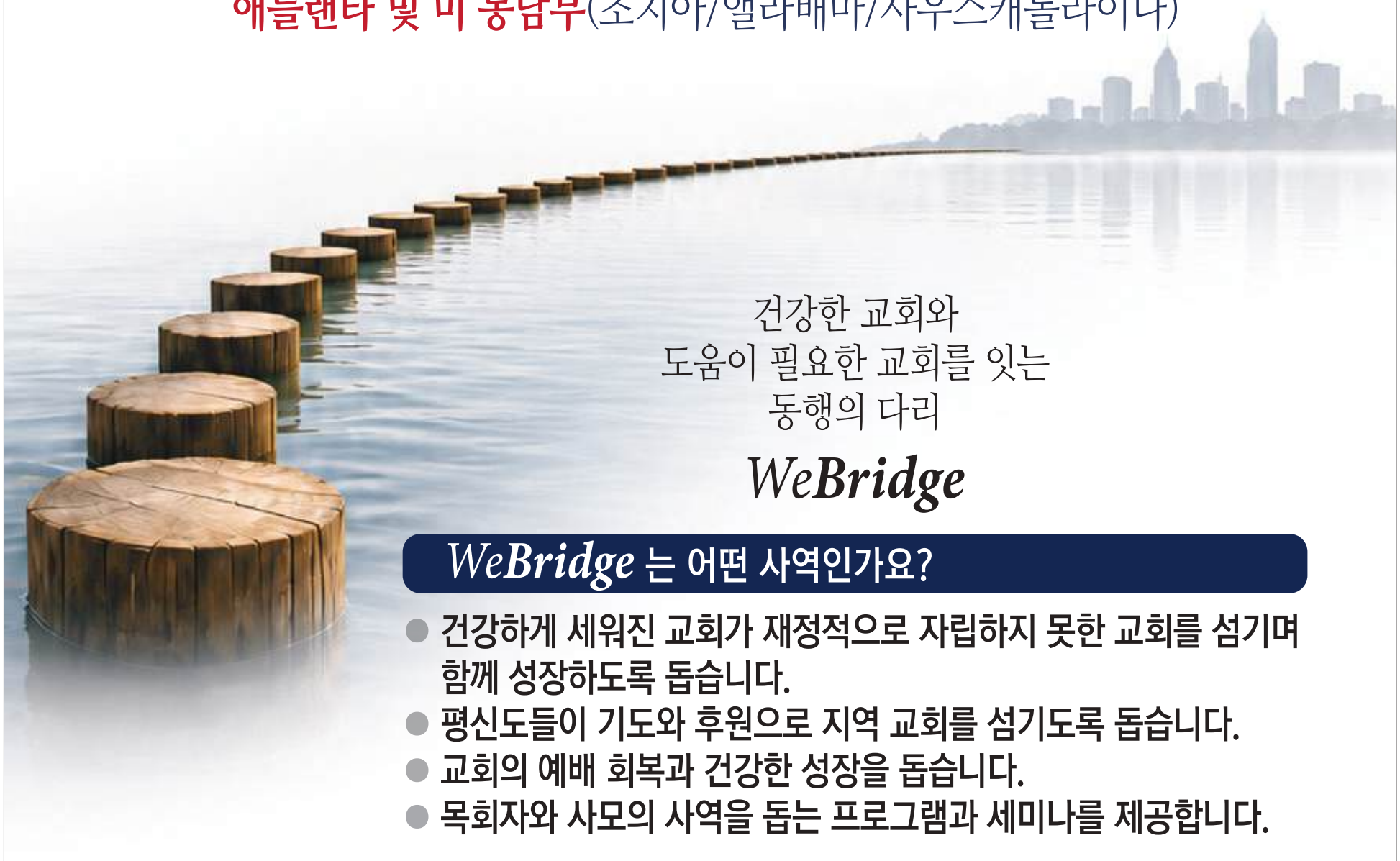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WEBRIDGE
CHURCH TO CHURCH

위브릿지
지원 대상 교회 모집

애틀랜타 및 미 동남부(조지아/앨라배마/사우스캐롤라이나)



건강한 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잇는
동행의 다리

WeBridge

WeBridge 는 어떤 사역인가요?

-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평신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도록 돕습니다.
- 교회의 예배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목회자와 사모의 사역을 돕는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1. 설립한 지 10년 미만이며, 담임목사가 만 60세 미만인 교회
2. 자체 건물 없이 예배 장소를 빌려 예배드리는 교회
3. 건강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
4. 성인 예배 참석 인원이 30명 이하인 교회

지원 내용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매월 $500**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연결된 후원 교회 또는 후원 단체가 3년간의 후원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청 안내

-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결과**: 2026년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
-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 chdailyla@gmail.com

신청 QR 코드









주최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The Korean Church Council of the Greater Atlanta) ◆ 기독일보 (Christianity Daily)

주관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사설] 北 인권문제, 글로벌 중추국가의 책무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최근 실시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8.6%가 찬성했다.

NKDB가 최근 발표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성숙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95.8%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68.6%가 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찬성한 것은 단순하게 서로 모순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평화공존)'과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 측면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국민의 복합적 요구와 만나게 된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평화'와 '인권·압박'을 놓고 양자택일의 구도로 나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평화 유지와 인권 증진의 가치를 병행해야 할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관리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겪는 참혹한 인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류애적 합의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를 협상의 부차적 변수로 미루지 말고, 평화공존 정책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라는 국민의 주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진)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보호해야 할 국민에 포함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임이 분명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한 남북한 사이의 평화는 불안정한 '소극적 평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이 개선될 때 비로소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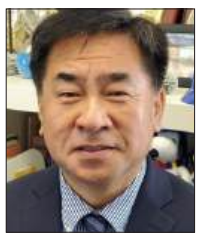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또는 실질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열릴 때 북한 주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의 트라우마와 극심한 생활 격차는 큰 사회적 갈등과 통합 비용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히 기록·조사하고 인도적 지원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의 통합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이 마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인양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북 굴종이자 북한 주민들을 영구히 인권 침해 지옥에 가두고 얻을 수 있는 건 평화공존이 아니라 대북 굴종이라는 수치스러운 굴레일 뿐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특정 집단의 내정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제이 팍 칼럼

볏단은 서로의 마당으로, 안부는 서로의 가슴으로



박 상 준 의장
피코 유니온 주민의회

어린 시절, 흑백 사진처럼 바래져 가는 국어 교과서 한 페이지를 펼치면 언제나 가슴 한구석을 뭉클하게 적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판, 추수가 끝난 밤에 형은 동생의 볏단이 적을까 봐 몰래 자신의 벼를 옮겨다 놓고, 동생은 또 식구 많은 형을 걱정하며 반대 방향으로 볏단을 져 나르던 '의좋은 형제'의 풍경입니다.

아주 오래전, 60여 년이라는 세월의 저편에서 불어오는 아동문학 같은 옛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오늘날의 세상을 돌아보면, 이 소박한 전래동화가 품은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재단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가진 조건과 물질의 척도가 곧 인격과 인간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저울처럼 여겨지는 황금만능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혈육의 정마저 각자의 삶이라는 이름 아래 희미해지고, 단절된 섬들로 흩어져 버린 현대 사회에서 형제간의 따뜻한 교류와 사랑의 나누임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피난처이자 절실한 필요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서로의 형제와 이웃으로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듯, 오늘날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삶에는 맏이로서, 또 피붙이로서 온기를 전하는 거룩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란 결코 동생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지우거나 권위로 간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타향 땅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생들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헤아려 주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묶어주신 부모님의 온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리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데 있습니다.

볏단을 옮긴 것은 형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역시 형의 살림을 염려하여 몰래 자신의 볏단을 형의 마당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의좋은 형제의 본질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상호성'과 깊은 이해였습니다. 형이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우가 공경과 우애로 화답할 때 비로소 달빛 아래 볏단은 양쪽 마당을 넉넉하게 채우게 됩니다.

혈육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온기는 마침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흩어진 형제와 불편했던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메마른 이 사회에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증거하는 거대한 시작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한 푼 더 물려주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듬는 보배로운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만큼 값진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오해와 서운함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곳 LA 한인사회에서 거리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먼 곳 타지에 떨어져 머물고 있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멀고 가까움은 마음의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서먹했던 형제나 이웃이라 할지라도, 창조주께서 맺어주신 인연의 줄을 기억하며 수화기를 들고 먼저 다가선다면 마음의 얽힌 실타래는 물 흐르듯 풀어질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앙금이 남아있다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마침내 창가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면, 나는 먼 타향에서 외로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을 사랑하는 동생에게 수화기를 들고 안부 편지를 띄우듯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늘 동생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내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이 주신 따뜻한 목소리로 첫인사를 건넵니다.

"어이, 동생! 거긴 날씨가 어떤가? 아침 식사는 잘 챙겨 먹었어?"

피를 나눈 형제와 이웃에게 건네는 다정한 전화 한 통, 따뜻한 안부편지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달빛 아래 몰래 볏단을 옮기던 그 순수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아침, 수화기 끝에서 환하게 피어납니다.

2026년의 남은 날들 동안 온 LA 한인사회가 타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찾는 안부 전화로 북새통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화해와 사랑의 목소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나부터 먼저 수화기를 들고 사랑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생성형 AI 시대 공부는 왜 필요한가

지난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는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한 문제만 틀렸다. 그러나 지난 15일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자수했다.

프랑스 외과 의사 로랑 알레상드르와 경제학자 올리비에 바보는 신간 『공부의 종말』(부키)에서 AI가 시험 문제를 풀고 글까지 쓰는 시대에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제 'Ne faites plus d'études!'는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라는 뜻이다. 두 저자가 주목한 것은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학위를 얻은 뒤 그 지식으로 일하는 교육·취업 경로의 변화였다.

저자들은 "현재의 혁명은 '지능이 공짜가 된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썼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은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일부터 번역과 코딩, 글쓰기까지 사람이 오랜 시간 훈련해 익혀 온 능력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AI가 이런 작업을 짧은 시간에 수행하면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은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과 학교에 던진 과제를 함께 다뤘다. 저자들은 직업 자체가 달라지고 일터에서 요구하는 지식도 바뀌는 만큼, 학교에서 배운 뒤 취업하는 것으로 학습을 마치는 "공부하고 나서 일한다"는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했다.

두 저자가 AI 시대의 인간상으로 제시한 말은 '호모 디스켄스(Homo Discens)', 곧 '배우는 인간'이었다. 이들은 학교를 마친 뒤에도 무엇을 새로 배워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일과 생활의 변화에 맞춰 배움을 이어가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성경 속 기적,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사건”

2026 기독교변증컨퍼런스, “기적, 오늘날에도 가능한가” 주제로 열려



박명룡 목사는 ‘기적,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를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 보고되는 치유 사례와 초자연적 현상을 살펴보고, 기적의 가능성을 둘러싼 자연주의적 비판과 기독교적 해석을 검토했다. ⓒ 주최측 제공

[지난호 6면 기사 “성경 속 기적,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사건” 에 이어서]

김기호 교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적 비교’

두 번째 강연에 나선 김기호 교수(한동대학교 신앙교육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적 비교’를 주제로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전승을 비교하고, 신학적·역사적 특징을 분석했다.

그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적과 구원에 관한 교리가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기적 전승이 다른 종교의 기적 이야기보다 교리적 일관성과 역사적 개연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독교 기적논증의 독특성은 단순히 기적의 수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와 구속사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며 기독교의 기적을 평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역사적 기록, 핵심 교리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의 기적논증은 다른 종교에서 보고된 모든 초자연적 현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적 주장을 해당 종교의 교리와 역사적 기록, 종교의 형성 과정에서 평가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명룡 목사 ‘기적,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세 번째 강연에 나선 박명룡 목사는 ‘기적,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를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 보고되는 치유 사례와 초자연적 현상을 살펴보고, 기적의 가능성을 둘러싼 자연주의적 비판과 기독교적 해석을 검토했다. 박 목사는 기적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과학적 연구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자연을 넘어서는 실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철학적 전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신론적 자연주의가 우주를 자연적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보는 유신론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기적을 자연법칙의 위반으로 이해한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주장을 소개하고, 현대에도 기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목사는 2004년 미국 의사 약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으며, 55%는 환자에게서 기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목격했다고 응답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2015년 바나리서치 조사에서는 미국인 응답자의 67%가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통계가 기적의 가능성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건의 초자연적 원인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물론 이러한 통계가 각각의 사례가 기적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적에 관한 증언을 검토할 때 실제 사건과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약학자 크레이그 키너가 세계 여러 지역의 치유 증언을 수집하고 검토한 연구를 소개했다. 박 목사는 키너와 필립 젠킨스 등 연구자들의 저술을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교회 성장 과정에서 치유와 초자연적 경험에 관한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보고된 치유 사례와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치유 경험이 복음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슬람권에서도 꿈과 환상, 치유 경험을 통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현대의 치유 증언을 다룬 사례로 미국의 바버라 커미스키와 델리아 녹스의 경험을 소개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오랫동안 투병했던 커미스키가 기도를 받은 뒤 회복됐다는 증언과,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를 겪었던 녹스가 기도 집회에 참석한 뒤 다시 걷게 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자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 보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례들은 당사자와 관계자의 증언 및 관련 저술을 통해 소개된 것으로, 개별 치유의 초자연적 원인이 의학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박 목사는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치유와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을 무조건 기적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며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보고되더라도 해당 증언과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박 목사는 “기적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내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다”라며 기적의 발생 여부를 인간의 뜻이나 요구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태도와 모든 기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적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기독교적 믿음과 함께 개별 증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환균 대표,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강연에 나선 안환균 대표는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구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안 목사는 성경의 기적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등장하는 권능과 기사, 표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성경이 기적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권능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움을, 표적은 그 사건이 가리키는 신학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안 목사는 “성경 속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는 것이 이 강의의 테마다”라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을 예고와 성취, 확장의 관계로 설명했다. 구약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줬으며,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고, 사도들의 기적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구약의 기적은 예고편이다”라며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나타난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미리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복음 전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안 목사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생활에 나타난 기적을 살펴봤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된 사건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비교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비교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공급과 구원의 의미를 미리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안 목사는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에게 곡식과 기름이 공급된 사건, 엘리사가 보리떡 스무 개로 백 명을 먹인 사건도 검토했다. 이러한 구약의 기적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연결되며 하나님의 공급과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신 행동을 최후의 만찬과 부활 이후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장면과 연결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식량 공급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안 목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광야에서 만나가 공급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신자들의 나눔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생명의 공급과 구원이 초대교회의 생활에서는 나눔과 돌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안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보여주기용 쇼가 아니었다”며 각각의 기적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목적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및 재림을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기적을 제거하면 창조와 구원, 부활에 관한 신앙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기적을 성경의 구원 역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을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로 제시했다. 자연법칙의 존재만으로 초자연적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지가 기적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다니엘 최 기자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실 목회자님의 귀한 지원을 기다립니다.

1. 교회
- **교회명:**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주소:**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39
- **문의:** 위원장 – 김크리스 (213) 258-8956
- **소속 교단:** 해외한인장로회 (KPCA)
- **홈페이지:** www.omychurch.org

2. 지원 자격
- 미국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수 있는 분
- 정규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이 5년 이상인 분 (부목사 경력 포함)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한국어 설교가 능숙하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우대

3.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가족 소개 포함, 최근 본인 사진 및 가족 사진 첨부)
-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2편 (YouTube Unlisted Link 제출)
- 최종 사역 교회 주보 및 홈페이지 주소
- 목사 2인의 추천서 (추천인 연락처 기재 필수 / 추천인이 이메일로 직접 제출)
-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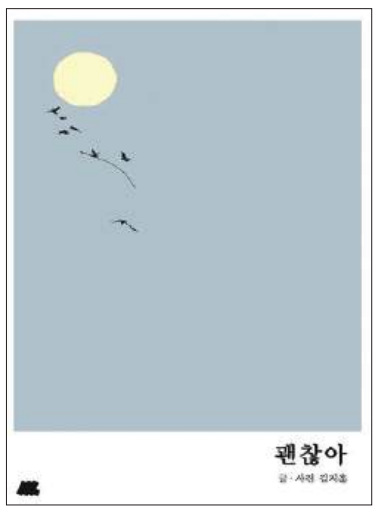
4. 제출 방법
- **제출 이메일:** admin@antiochchurchlv.com
- **제출 기한:** 2026년 12월 19일
  - *설교 영상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청빙 결정 후에도 청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후보자에게는 원본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위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귀농한 크리스천이 선물하는 쉼과 위로

내 마음에 품는 묵상들, 건강하고 아름다웠으면



괜찮아

김지훈 | 쓰담
114쪽

흙을 만지는 농부의 손으로 써 내려간 위로의 문장들.

매일 땅을 일구고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유기농부 김지훈이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길어 올린 짧은 시와 산문을 담았습니다

『괜찮아』는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난 작은 새싹에서 강인한 용기를, 서로를 의지하는 작두콩 지주대에서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등, 자연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통찰을 보여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에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다정한 속삭임 같습니다

지친 일상에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이 책은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위로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일까? 그렇다. 저자가 기독교인이다. 유기농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부터 밤까지 논과 밭에서 일하는 김지훈 작가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가 만지고 가꾸고 돌보는 땅과 식물과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 책엔 드물지만, 성경구절이 나온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자연의 이치에서 저자가 뽑아내는 교훈엔 성경의 원리, 즉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담겨 있다.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짤막한 글귀들은 길고 풍부한 설명이 담아낼 수 없는 깊고 잔잔한 감동을 남기는데, 마르틴 루터가 한 말, "농부가 밭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가 떠오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신 것처럼, 저자는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방식의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이 책에 담아낸 것이 아닐까?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 책에 관한 기사를 담았는데, 저자의 귀농 사연을 이렇게 소개했다: "누구보다 빠르고 복잡한 도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던 그는, '인생의 신호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더 이상 내 주파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2014년, 과감히 도시를 떠나 전라남도 영광으로 귀농했다. 처음엔 서툴고 낯설었지만, 땅은 그의 손을 기억했고, 자연은 그에게 천천히 답을 주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게 해주는 농부'라 부른다."

작가는 귀농 후 11년의 경험을 이 책에 풀었다. 매일 반복되는 복잡하고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저자가 선택한 삶과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 고백이 쉼을 주고 또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한나 앤더슨은 『겸손한 뿌리』라는 책에서, 남편과 함께 시골에 살면서 각종 식물을 재배하는 장면을 소개한다(도서출판100, 2017). 그녀는 다소 디테일한 경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겸손의 원리와 교훈을 발견하고 독자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한다.

'땅을 보고 식물을 보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에 관하여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다. 작가 김지훈은 앤더슨처럼 많은 말을 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절제된 말을 한다.

가령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다. 내면의 알곡 채우기(71쪽)!"라고 두 줄의 묵상을 적었다. 그가 찍은 "고개 숙인 벼" 사진을 들여다 보면, 저자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에 잠긴다.

겸손은 그냥 고개를 처박는 게 아니다. 내면에 열매를 맺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 온유, 사랑, 희락, 자비, 온유, 절제 등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겸손은 저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다.

저자 김지훈은 이 책을 봄·여름·가을·겨울로 구성했고, 사진도 계절에 맞게 수록했다. 세 아이 아버지인 그는 아이들 사진도 중간에 집어넣었는데, 시골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도 순수한 행복이 보이는 것 같다. 또한 여러 글귀에서 저자가 가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고백이 더 진실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그가 찍은 사진에 담긴 일상과 삶이 그의 글에 무게를 더하고 감동을 불어넣기 때문인 것 같다. 가령 그는 잘 말린 작두콩으로 하트를 만들고는 "말, 글, 행동, 선물 어떤 모양이든 사랑의 대상에게 표현해야 한다.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가



▲ⓒ픽사베이

을 햇볕에 잘 말린 작두콩으로 사랑을 표현한다(78-79쪽)"고 썼다.

평범해 보이는 고백이지만, 그가 실제로 말린 작두콩으로 하트를 만들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진솔한 고백의 글을 써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평범한 고백이 특별한 표현으로 와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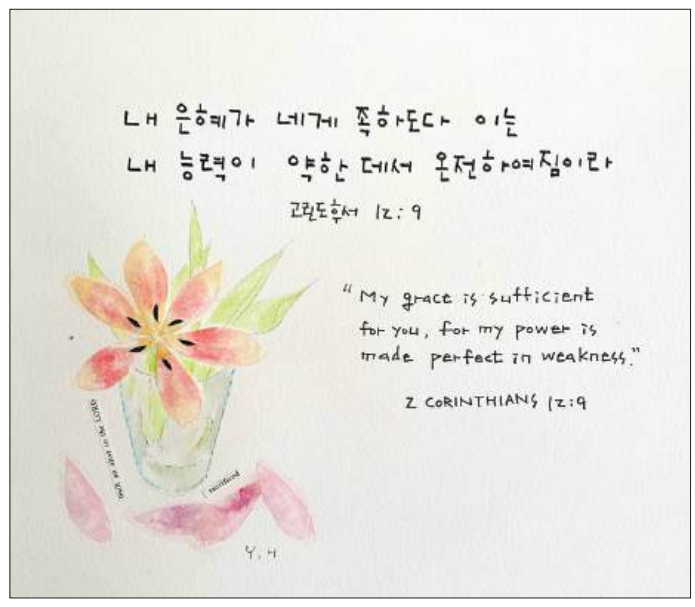
존 오웬은 존 버니언의 설교를 즐겨 들었는데,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놀라며 '당신 같은 박식한 학자가 어찌 그런 무식한 땜장이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오웬은 "그 사람이 가진 성령의 능력과 마음의 진리를 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학문과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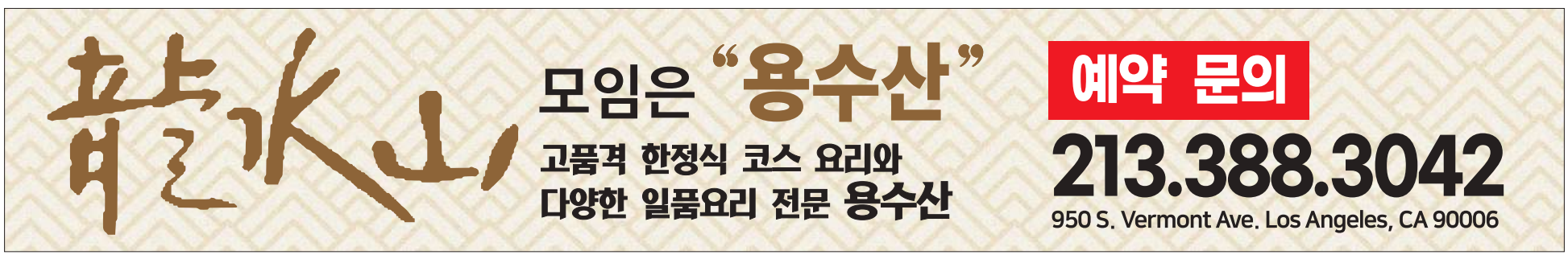
필자는 절대로 스스로를 박식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제발 오해하지 않기를). 많은 책과 강의를 통해 배우는 지식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는 마음의 진리를, 그 진리가 가진 능력을 순수하게 일상에서 늘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품는 묵상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되새길 수 있는 쉼과 여유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게 아닐까?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시선이 머문 자리, 사랑이 된 선물

‘바로 그 하얀 책 열풍’ 소설『테오』, 신앙적 고백과 삶의 실천

설교하기 전에 먼저 먹이라 굶주린 이웃 따뜻하게 공급
훈계보다 거부감 없는 감동
이웃 보듬는 성육신적 긍휼

앨런 레비(Allen Levi)의 소설『골든의 테오(Theo of Golden, 한국명 테오)』는 조지아주 작은 마을 ‘골든’에 홀연히 나타난 포르투갈 출신 노인 테오의 조용한 일상으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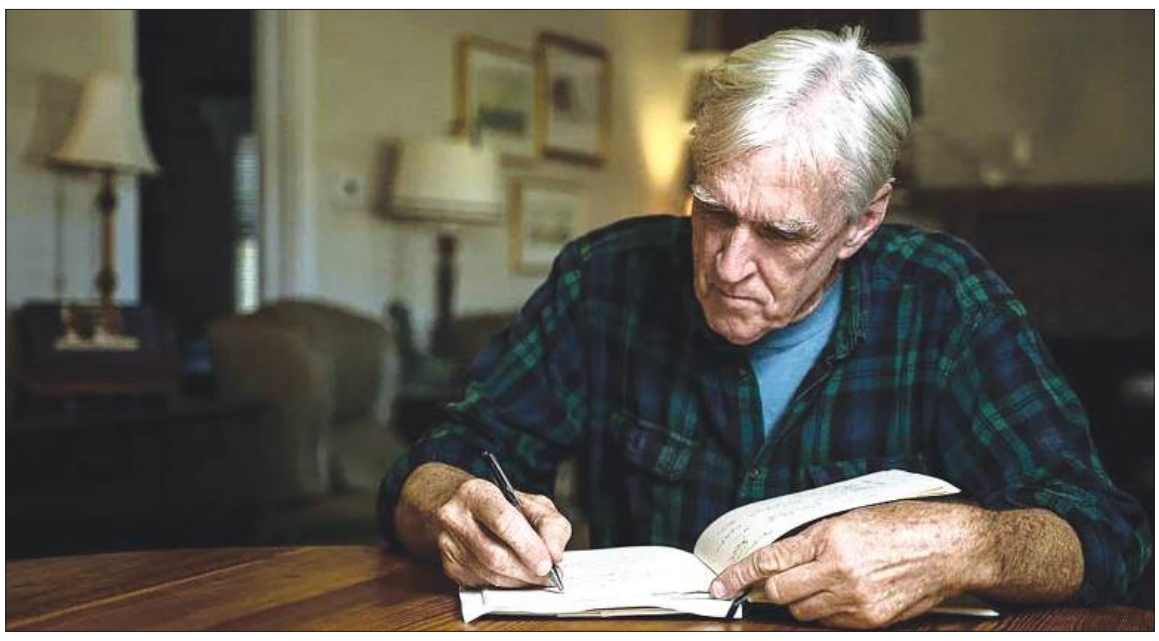
미술을 전공한 테오는 마을의 작은 카페 ‘더 챌리스(The Chalice)’에서 지역 예술가 애셔 글리슨이 그린 92점의 연필 초상화를 발견한다. 이 초상화들은 골든 마을에 사는 이웃들의 얼굴을 담아낸 것이었다. 그는 그림에 매료돼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림들을 모두 구입해 ‘초상화 속 주인공들’을 직접 찾아가 선물해 주기로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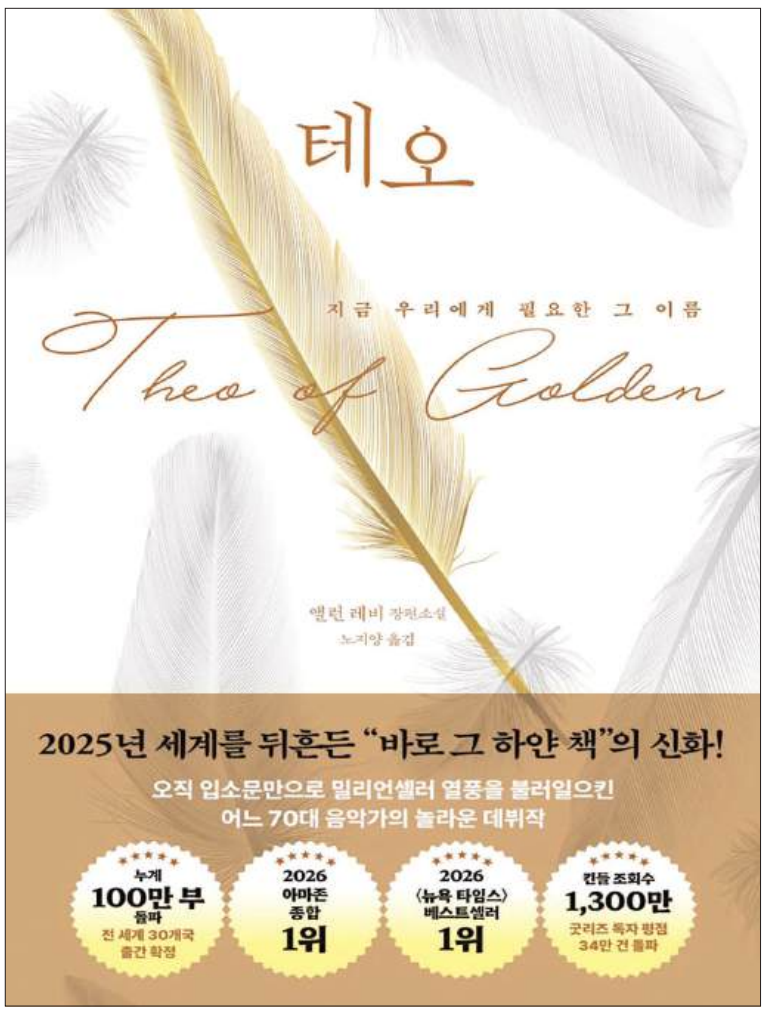
테오를 비롯해 골든의 주민들은 저마다의 상처, 즉 가족의 죽음, 전쟁 트라우마, 질병, 빈곤 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테오는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 명예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익명의 친절’로 그들의 문을 두드린다.

낯선 이방인 노인이 불쑥 찾아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초상화를 건네자, 처음에는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테오를 경계하고 의아해한다. 어떤 이는 그림을 펼쳐보고 늙고 주름진 자신, 초라한 일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화폭 속에서 자신의 흉터와 고단함이 추함이 아니라, 화가 애셔의 정성 어린 붓끝과 테오의 따스한 시선을 통해 ‘존엄하고 아름다운 한 인간의 얼굴’로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주민들은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힌다. 전쟁 트라우마,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감, 지독한 외로움을 테오 앞에서 쏟아내며, 생전 처음으로 타인에게 조건 없이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소설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깊은 상처를 통과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온전한 긍휼의 눈으로 어루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세상의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던 평범한 이웃들의 존엄성과 숨겨진 존재 가치를 따스하게 길어 올린다.


▲작가 앨런 레비. ⓒallenlevi.com



상처를 통과한 부성(父性)

남에게 아낌없는 친절을 건네던 테오 역시 가슴속 깊은 상실의 아픔을 품고 있던 인물이다. 과거 프랑스에서 겪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한순간에 잃었던 처절한 비극이 뒤늦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가 왜 머나먼 골든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숨은 사연도 밝혀진다.

청년 시절 마드리드에서 미술을 공부할 당시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 임신한 채 고향인 골든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초상화를 그린 화가 ‘애셔 글리슨’이었던 것이다. 테오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아들의 예술과 삶, 그리고 그가 발딛고 사는 마을의 소박한 이웃들을 뒤에서 조용히 축복하고 품어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테오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스케치북과 서신, 마드리드 시절의 기억들을 통해 애셔와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이방인 노인의 참모습을 온전히 깨닫는다.

테오는 아무런 대가나 요구도 남기지 않은 채 홀연히 떠났고, 남겨진 것은 세월의 더께가 묻은 메모와 스케치북뿐이었다.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는 침묵의 유품들은 그가 골든에 머문 목적이 결코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의 삶과 예술을 온전히 축복하기 위함’이었음을 증명한다.

자신을 그저 따뜻하게 지켜보아주던 한 늙은 이방인으로만 여겼던 애셔는, 테오가 남긴 스케치북과 빛바랜 기록들을 마주하고서야 그 노인이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 평생의 상처와 비밀을 가슴에 묻었던 ‘아버지’였음을 깨닫는다.

화이트 큐브를 넘어 피어난 ‘선물’과 샬롬

테오가 남기고 간 선물은 마을 전체에 거대한 영적 파동을 일으킨다. 각자의 결핍과 고립 속에서 타인을 경계하던 이웃들은, 테오가 건넨 그림을 매개로 비로소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자각하고,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기 시작한다.

단절됐던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고, 깨어졌던 관계의 틈바구니에 대화와 용서가 싹트며, 골든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나누는 ‘샬롬’의 유기적 공동체로 변모해 간다. 한 사람이 뿌린 무조건적인 친절과 묵묵한 경청이 공동체 전체의 일상적 문화로 피어난 것이다.

이는 예술이 지향해야 할 미학적 지평인 ‘공동선(Common Good)’이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생생히 웅변한다. 예술은 화이트 큐브(White Cube)의 차가운 벽면에 박제된 상품이 아니라, 파편화된 인간 사이의 단절을 허물고 일그러진 세상을 생명의 자리로 빚어내는 통로다.

루이스 하이드(Lewis Hyde)가『선물(The Gift)』에서 갈파했듯이, 예술은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이기 이전에 거저 주어지고 조건 없이 흘러가야 하는 ‘선물’이다. 자본주의적 효용성이 모든 가치를 잠식한 세상 한가운데서, 테오의 선물 행위는 타자를 향한 순전한 환대와 연대의 힘을 장엄하게 증언한다.

성육신적 긍휼의 미학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인 앨런 레비는 이러한 예술관을 자신의 신앙적 고백과 삶의 실천에서 길어 올렸다.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성장한 레비는 무대에 서거나 글을 쓸 때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먼저 먹이라”는 원칙을 품는다고 밝힌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책임은 굶주린 이웃을 따뜻하게 먹이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먹이는 일’이란 훈계를 앞세우기보다 작품을 통해 읽는 이의 마음에 거부감 없는 감동과 온기 어린 서사를 건네는 일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술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C. S. 루이스는 예술가의 첫 번째 의무가 가르치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부분은 은은하게, ‘기쁨을 주는’ 부분은 최대한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Christianity Today, February 19, 2026).”

부서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 마을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던 경청,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유품만을 남긴 채 홀연히 세상을 떠난 테오의 뒷모습은 먹먹하기만 하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이웃들을 보듬는 이 소설은 깨어지고 짓무른 실존의 자리에 말없이 찾아와 함께 머무시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긍휼을 조용히 비춘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22년 마약 중독에서 중독자 돕는 목사로

2026 다니엘기도회 11일차 간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강사: 한영호 목사 (나눔선교회 대표)
본문: 로마서 8장 5-11절



▲한영호 목사가 간증하고 있다. ⓒ유튜브

1. 저는 22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훌륭한 목사로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2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약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직접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팔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조직에 몸담아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었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마약을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좋아서 했습니다. 마약이 좋았기 때문에 22년 동안 빠져 살았습니다. 물론 끊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마약을 원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머리로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끌려갑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게 마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마약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자신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쾌락과 자기 자랑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폭력 속에서 살아왔고, 몸에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끔찍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죽어 있는 제 육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눈을 떠 보니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돈도, 힘도, 조직도, 제 자신도 결국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샤워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저에게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 인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생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체험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나무도 아름다웠고 작은 개미조차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 개미를 싫어했습니다. 개미가 보이면 죽여 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명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만났을 때도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은 단순히 마약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서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마약 중독자가 변화되어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척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다운 목사, 정직한 목사, 솔직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에게 학력을 묻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퇴학당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로 살았고 감옥에도 드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력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제 과거를 그대로 적어 보냈습니다. 중학교 퇴학, 마약 중독, 감옥 생활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무슨 이력서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학력과 학위까지 정리해 보냈더니 왜 처음부터 그렇게 보내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학위를 설교하고 있습니까?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격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선교회에서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과 먹고 자며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함께 살아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할 수 있지만, 생활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원생들이 모두 지켜봅니다.

설교 시간에 사랑을 말하면서 생활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정직을 가르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원생들에게 신앙생활을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중독자들을 변화시키려다, 오히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나눔선교회를 30년 동안 섬겨 왔습니다. 현재 약 40명의 원생이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200명의 중독자가 이곳을 거쳐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중독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독자를 무조건 가르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가 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강하게 저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저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함께 살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생들과 함께 살면서 정직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마약을 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사에게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저는 나눔선교회가 원생들만을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세워주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제 생각과 욕망을 의지하는 순간 다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제 자신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5.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조직 생활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9년, 제가 속했던 조직 보스에게 한 동료가 돈 1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갔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보스는 저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 데려왔습니다. 조직의 돈을 훔쳤으니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스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1만 달러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하고 가져가."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용서해 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돈을 훔쳤던 동료가 보스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실제로 도박을 그만두었습니다.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20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 금융문맹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쓰니 은퇴자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보험에 대한 인식에 오해가 많고, 생명보험하면 달갑지 않다고 해도 10년 전, 20년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어김없는 질문들이 쏟아 집니다. *"내 보험 도대체 언제까지 내는 겁니까", "이 생명보험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제 취소해야 겠어요", "이 보험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명보험의 목적과 효율성이 달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똑소리 난다고 할까요.**

1. 오래된 생명보험, 은퇴 플랜으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캐쉬밸류가 쌓이는 플랜이라면 생명보험은 아주 훌륭한 은퇴 플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불짜리 생명보험을 20년 전 가입했는데, 자녀들은 이제 완전히 성장하고 독립하여 자리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조금이라도 은퇴 인컴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고 필요를 느끼곤 하지요. 이럴때 생명보험은
첫째, 생명보험 내에 쌓인 어카운트 캐쉬밸류를 빌려 씀으로써, 인컴 세금도 내지 않고 한달에 1000불, 2000불씩 내게 필요한 은퇴 인컴으로 찾아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모든 돈을 다 찾아 쓰지 않는 한 보험은 유지되는데 장례비 정도의 금액을 자녀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찾아 쓰시 는 겁니다.

둘째, 장례비 조차도 남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다면, 생명보험의 캐쉬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매달 따박따박 소셜연금처럼 찾아 쓰는 플랜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생명보험의 캐쉬밸류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어뉴이티로 옮겨서 보험료로 빠지는 부분 없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며 은퇴 플랜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 오래된 생명보험, 암 같은 중병이나 롱텀케어 때 확실한 플랜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조건입니다. 미국에서 암, 심장병, 뇌졸증, 신장투석이나 주요 장기 이식등과 같은 병의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잃어서 일을 쉬게 되고, 벌어 드리는 인컴은 중단되게 되지요. 이때는 보험료 조차도 어쩌면 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을 취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암 진단 시 사망보상금을 살아있는 내가 미리 받아 쓰는 조건, 즉 리빙베네핏이 있는 플랜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한달 우리 부부 6천불로 살 수 있겠지 계획했다 하더라도, 롱텀케어 상황의 진단을 받을 때 예상치 못한 롱텀케어 월 평균 비용 7,500불로 인해 부부 한분만 롱텀케어 상황이 되면 나머지 한분의 은퇴는 한 순간에 위협에 처하기도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6가지 생활 기능 중 2가지 이상을 홀로 수행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롱텀케어 진단을 받게 되면 역시 사망보상금을 살아있는 내가 미리 받는 리빙베네핏이 중요합니다. 다만 10년 전 20년 전 가입한 보험이 이 리빙베네핏 혜택이 없다면 이제 그 생명보험도 살아 있는 내가 혜택을 보는 리빙베네핏이 포함된 생명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오래된 생명보험,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자라는 은퇴 저축 플랜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적어 캐쉬밸류가 적게 자라고 있다면, 혹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새로운 높은 이자의 생명보험으로 옮겨서 더 많은 캐쉬밸류를 쌓을 수 있도록 당연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금융상품이 좋아집니다. 같은 생명보험이라도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꼭 그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보는 손해는 없는지 꼭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 그룹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 입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Good Neighbors USA

Good Light Campaign



성탄의 빛을, 이웃의 삶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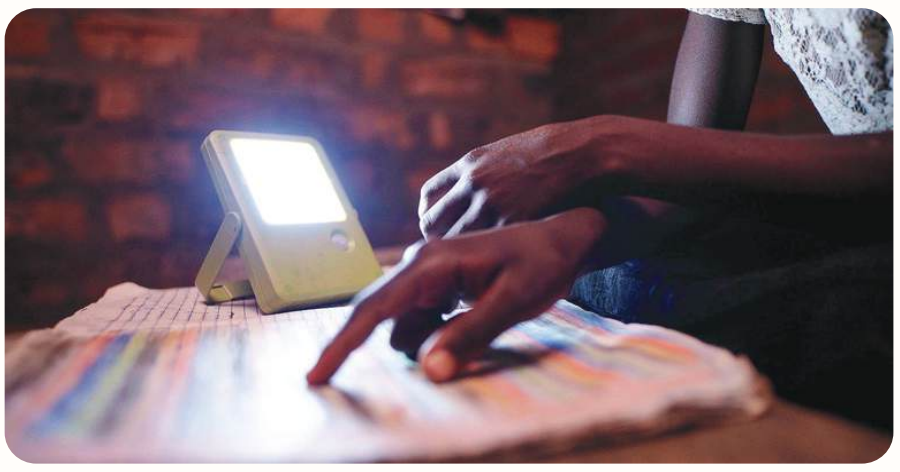
어둠 속 세상에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졌듯, 이제 우리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웃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빛이 필요한 이웃에게 굿라이트를 선물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마태복음 5:14

One Light, Three Rights

전기가 없는 세계 인구의 약 80%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굿라이트 하나가 아이의 밤을 바꿉니다.



교육권
해가 진 뒤에도 책을 펴고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권
연기 나는 등유 램프나 촛불 대신 깨끗한 빛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건강, 안전한 일상을 밝힙니다.

안전권
어두운 밤길이 덜 두렵습니다. 빛은 아이들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조립 키트와 설명 자료, 영상, 전달 보고까지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01 말씀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빛이 필요한 이유를 배웁니다.

02 함께 굿라이트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직접 조립하며 이웃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합니다.

0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라이트를 받을 친구들의 일상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04 전해진 빛의 소식을 나눠요.
전달 소식으로 우리 교회의 나눔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문의: 877-499-9898 | info@goodneighbors.us

QR로 키트 신청